

삼성중공업, LNG-FPSO 수주 “대박”

FLEX LNG와 5억5000만달러에 계약 ... 세계 해양가스전 설비시장 선점

삼성중공업이 천연가스 생산 및 육상 액화, 저장 설비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개념의 LNG-FPSO(부유식원유 생산저장설비)를 세계 최초로 일괄 수주했다.

삼성중공업은 3월 영국의 FLEX LNG로부터 LNG-FPSO의 하부선체를 4억5900만달러에 수주한데 이어 최근 연간 170만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상부설비 계약까지 5억5000만달러에 따냄으로써 1척당 1조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복합선박인 LNG-FPSO를 세계 최초로 일괄 수주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.

삼성중공업은 LNG-FPSO 수주를 통해 조선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해양가스전 설비시장을 선점하게 됐다.

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2008년 이미 135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50억달러의 90%를 달성했으며 드릴십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2008년 말까지 200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할 전망이다.

LNG-FPSO는 기존의 대형 LNG선 보다 가격이 4배 이상 높고, 원유를 생산·저장하는 일반적인 FPSO와 달리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주된 천연가스용 FPSO이다.

삼성중공업은 2008년 들어 FLEX LNG로부터 LNG-FPSO 하부선체 4척을 이미 수주해 놓고 있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상부설비 추가 수주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LNG-FPSO가 개발되기 전에는 가스전에서 뽑아 올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 액화·저장설비에 보관해 두었다가 LNG선으로 운송했으나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LNG-FPSO는 해상에서 바로 액화·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장착시킨 복합기능 선박이다.

관련 업계에 따르면, 매장량 1억톤 이하의 중·소규모 해양 가스전은 전세계에 2400여개가 넘으며, 고유가에 따라 대체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매년 10% 늘고 있어 오일메이저 및 LNG 선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.

개발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13개 가스전에서 30여척의 LNG-FPSO 발주가 추진되고 있어 삼성중공업은 유럽의 해양설비 전문기업들을 제치고 첫 발주 물량을 일괄 수주함으로써 앞으로 수주전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.

삼성중공업은 LNG-FPSO 설계, 제작, 설치, 시운전까지 전과정을 턴키로 맡아 수행하며 2012년 부터 나이지리아 서부해상에 투입돼 천연가스를 10년간 생산하게 된다.

또 9노트의 속도로 자체이동이 가능해 임무종료 후 다른 가스전 개발에 투입된다.

삼성중공업은 22만^m 용량의 LNG-FPSO를 기반으로 2009년에는 56만^m 수준의 초대형 LNG-FPSO를 개발해 앞으로 연간 40억달러의 LNG-FPSO를 수주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9/18>